

2020년 제2차 한글실시간속기시험 필기시험 객관식 답안

1. 아래의 예문을 보시고 띄어쓰기가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 ① 모르면 가만있어.
- ② 지난 10여년 간에 벌어진 일이다.
- ③ 형제간에는 사이가 좋아야 한다.
- ④ 이것은 남녀 간의 문제이다.

*해설: ‘서울 부산 간’에서 사용된 ‘간’은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끼리는 띄어쓰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틀간, 한 달간’은 접미사입니다.

접미사는 조사처럼 붙여 쓰기가 원칙입니다.

복합어의 경우 많이 헛갈릴 수 있고, 위에 나열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것들은 속기록을 작성하실 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間)’은 거리와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서울 부산 간 야간열차, 남녀 간’

*‘간(間)’은 ‘동안’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이틀간, 한 달간’

*많이 헛갈릴 수 있는 복합어-> ‘형제간, 부자간, 부부간, 고부간 등’

2. 아래의 예문을 보시고 맞춤법이 틀린 문장을 골라주세요.

- ① 갑작스러운 일을 겪고 정신이 없다.
- ② 그런대로 해나가고 있어.
- ③ 그럴려면 그만둬라.
- ④ 그러고 나서 학교로 가서 공부했지.

*해설:

-기계의 약자를 사용해서 ‘그런 대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대로’는 부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기가 원칙입니다. 실무를 하실 때에는 고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을 붙여서 사용하는 낱말들은 4낱말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로, 그런저런, 그런고로, 그런즉’인데 ‘그런대로와 그런저런’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려면’은 ‘그러려면’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원형입니다.

3. 아래의 예문을 보시고 사이시옷으로 잘못 쓰여진 것을 고르세요.

- ① 귀갓길 ② 등곶길 ③황툰길 ④ 전셋방

*해설:

사이시옷을 넣는 조건

- ①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
② 그 두 단어 중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일 것
③ 원래에는 없었던 된소리가 나거나 'ㄴ'소리가 덧날 것

‘한자+한자’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전세방’의 경우 한자+한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숫자, 셋방, 횃수'는 한자+한자와의 조합이지만 사이시옷을 사용하는어들입니다. 이 세 단어 외에 ‘뒷간, 곶간, 찻간’이 있으나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시옷은 ‘된소리, 거센소리’앞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뒤쪽, 뒤풀이 등’ 뒷말에서 된소리와 거센소리가 난다면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실무를 하시는 중에 사이시옷을 잘못 사용하시면 기본적인 맞춤법 상식이 없다는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 꼭 공부하여 주십시오.

4. 사이시옷이 잘못 들어간 단어는?

- ①북엇국 ②뒷쪽 ③햇수 ④횃수

*해설: ‘문제3’의 해설과 동일합니다.

5. 맞춤법상 맞는 표현을 찾으세요.

- ① 이번 일은 꺼름직하다.
② 이번 일은 께름직하다.
③ 이번 일은 꺼림칙하다.
④ 이번 일은 께림직하다.

*해설: ‘꺼림칙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6. 틀린 표현을 찾으세요.

- ① 꺾여진 곳 ② 낮가리다 ③ **넉넉치** ④ 서슴지

*해설: ‘넉넉하지’의 줄임말입니다. 문법적으로 받침 ㄱ, ㄴ, ㄷ의 무성음 뒤에 ‘하’가 붙는 상황에는 ‘하’를 없애고 줄여 쓸 수 있습니다.

7. ‘년도’와 ‘연도’를 올바르게 사용한 단어를 고르세요.

- ①등단 년도 ②**졸업 연도** ③설립 년도 ④신연도

*해설: 《한글 맞춤법》제10 항에는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여, 요, 유, 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등단 연도, 졸업 연도, 회계연도’ 등이 맞는 표현이며, ‘신년도’가 맞는 표현입니다.

‘년도’는 일정한 기간의 단위로서 ‘그해’를 뜻하는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원래 띄어 써야 하지만 그 앞에 표기되는 해가 숫자로 표기될 때는 붙여 쓰기를 허용합니다.

8. 맞춤법상 틀린 표현을 찾으세요.

- ①그 일은 녹록지 않은 일이다.
②그 일은 녹록하지 않은 일이다.
③**나는 그가 내일 떠난걸로 알고 있어.**
④내가 알기로 그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걸.

*해설:

‘녹록하다’의 ‘녹록’은 안울림소리 받침인 ‘ㄱ’으로 끝나므로, ‘하’가 아주 줄어 ‘녹록지’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녹록지’가 맞는 말인데 ‘한글과 컴퓨터’로 속기록을 작성할 경우 ‘녹록치’가 맞는 말로 표시가 됩니다.

맞춤법을 교정하는 빨간색 줄이 뜬다면 틀린 단어로 간주하여 속기록을 수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타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기본적인 맞춤법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④번의 ‘-는걸, -르걸’은 종결어미입니다. ‘습니다. 했습니다.’ 등과 같은 종결어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붙여 써야 합니다.

하지만 ③‘떠난걸로’에서 ‘걸’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9. 다음 낱말 중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승낙 ②왕래 ③불문룰 ④비논리

*해설: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는 '룰, 렐'로 적고 'ㄴ' 받침이나 모음 뒤에서는 '을, 열'로 적습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어려우니까 '을'로 표기하는 단어들은 '출산을, 백분을, 실패을'이라는 단어를 암기하시고, '룰'로 표기하는 단어들은 '합격룰, 성공룰'로 암기해보십시오. 예시로 들어드린 단어들 외에 암기하기가 더 쉬운 단어가 있다면 자신만의 단어를 만들어서 암기해 주십시오.

10. 다음 중 잘못 표기된 것을 골라주세요.

①곰곰이 ②반짚고리 ③다달이 ④나뭇가지

*해설: '반짚고리'로 표기해야 합니다.

11.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을 고르세요.

①사과 하고 배 하고는 과일이다.

②힘들어도 걸어갈만큼은 된다.

③그 밖에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④개 같이 별어서 정승 같이 쓴다.

*해설: 'ㄴ, ㄹ' 받침 뒤에 오는 '이, 것, 데, 지, 수, 리'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그럴 수, 공부하는 데, 할 것, 집에 간 지' 등

⇒①'-하고'는 조사입니다. 붙여 써야 합니다.

⇒②'걸어갈 만큼'에서 '만큼'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④'개같이'에서 '같이'는 조사입니다. 붙여 써야 합니다.

12.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을 고르세요.

①아버지 구두를 닦아서드렸다.

②고기는 알맞게 익혀내야 맛있단다.

③모양은 없어도 먹을만은 해.

④일이 될성 싶지가 않군.

*해설: 본 용언과 같이 쓰이면서 그 말에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어를 보조 용언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가 있습니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①아버지 구두를 닦아서 드렸다.

⇒③모양은 없어도 먹을 만은 해.

⇒④일이 될 성 싶지가 않군.

13. 다음 중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①운전은 이씨가 할 것입니다.

②저는 경주 김가입니다.

③경준 씨는 독고 탁 씨와 아는 사이인가요?

④최치수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해설: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직위명 등은 띄어 씁니다. ‘강인구 씨, 강 선생, 영철 군, 백범 김구 선생, 김 계장, 이 사장, 송 여사, 박 교장 등’

⇒①운전은 이 씨가 할 것입니다.

14. 다음 중 ‘못’을 띄어 써야 할 것은?

①이렇게 어려울 때는 못살던 시절을 기억하며 이겨 내자.

②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뽀 난다.

③아무래도 우리 언니는 시집을 못갈 것 같다.

④영미는 아직도 점심을 먹지 못했다.

*해설: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할 수 없다거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정의 의미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못하다’는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되지못하다’ 옳지 못하거나 보잘 것 없다는 뜻, ‘마지못하다’는 마음이 내키지는 아니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를 약자로 활용하시면 ‘되지 못하다, 마지 못하다’의 잘못된 표현으로 속기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못’의 활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맞춤법 책을 활용하시면서 반드시 공부해주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5.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①연필 한 자루 ②반 나절 ③옷 한 벌 ④소 한 마리

*해설: ‘한나절’의 반이라는 뜻입니다. 명사이므로 붙여 씁니다.

16. 다음 낱말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①이곳 저곳 ②한잔 술 ③이리저리 ④꽃잎 한잎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그 앞의 수관형사와 띄어 씁니다.

⇒④한 잎

17. 다음 문장에 들어갈 낱말을 고르세요.

‘그녀에게 사랑을 ()’

①받치다 ②받히다 ③바치다 ④받치다

*해설:

⇒①받치다: ‘받다’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로 쳐서 액체만 받아 낸다는 뜻입니다. 예시문장은 ‘믹서에 갈아 즙만 체에 받친다.’

⇒②받히다: ‘떠받음’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예시문장은 ‘쇠뿔에 받혔다’

⇒④받치다: ‘치밀어 오르다, 끼워 넣다, 우산이나 양산 등을 펴서 들다’

예시 문장은 ‘기둥 밑을 돌로 받친다.’

18. 다음 중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것을 2개 고르세요.

①밤을 새웠더니 너무 피곤하다. (새웠더니)

②밥을 안쳐 놓고 잠깐 슈퍼에 나왔다.

③너는 일만 벌려 놓고 마무리를 못하는구나. (벌여)

④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을 오른다.

*해설: ‘밤을 새다’, ‘일을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는 의미는 ‘벌이다’로 표기합니다.

19. 아래의 문장에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찼찼때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든지.

②그가 뭐라고 하든 안 믿을 거야.

③교실에서 휴대폰 사용은 일절 금지됨.

④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고장이 나 버렸네.

*해설: 지난 일은 ‘-더라, -던’으로 적는다.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면 ‘-든지’로 적는다.

예시문장은 ‘하던 일을 계속해라, 공놀이가 얼마나 재미있던지’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20.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 은혜에 보답한다.”

() 속에 알맞은 것은?

①그러므로써 ②그러므로서 ③그럼으로서 ④그럼으로써

*해설: ‘까닭’을 나타낼 때는 ‘-(으)므로’로 쓰이며, 명사 뒤에서 ‘수단, 방법’을 나타내면 ‘(ㄱ, -음)으로(써)’로 적는다.

예시문장은 ‘책이 없으므로 공부를 못 한다(o), 책이 없으므로써 공부를 못 한다(X)

‘으로, 로서, 으로서, 으로써’는 기계의 약자가 있으니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21. 다음 중 바르게 쓰인 말을 고르세요.

①윗니 ②윗돈 ③윗어른 ④웃입술

*해설: ‘웃’과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여 적습니다.

정말로 ‘위’의 개념이 있는 단어는 ‘윗’으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웃’으로 표기합니다.

예시문장은 ‘윗눈썹(o), 윗눈썹(X)’ ‘웃돈(o), 윗돈(X)’

22. 다음 낱말 중 ‘이’와 ‘히’의 쓰임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①툼툼이 ②살살이 ③가만이 ④도저히

*해설: 끝음절의 소리가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 또는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습니다.

⇒‘이’로만 표기하는 예시단어는 ‘가까이, 겹겹이, 고이, 깨끗이, 나뭇이, 날카로이, 느긋이, 툼툼이, 일일이, 번거로이 등’

⇒‘히’로만 표기하는 예시단어는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가만히, 당당히 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 혹시나 헛갈리시면 한번쯤은 검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 다음 중 바르게 쓰여진 낱말을 2개 고르세요.

①웃수염 ②시월 ③번거로히 ④농사꾼

*해설: 21번, 22번, 3번의 사이시옷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해설입니다.

2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잘못된 것은?

①곁잡아서 50명은 되겠다.

②이것은 책이 아니오.

③가게 앞에 물건들을 이렇게 벌여 놓으면 안 됩니다.

④면회는 일체 금지합니다.

*해설: 일체->모든 것을 뜻하면 일체로 적습니다.

일절->‘절대로, 결코’를 나타내면 일절로 적습니다.

25. 아래의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주세요.

인삼과 대추를 넣고 ()

①달인다. ②다린다.

*해설: ②번의 의미는 다리미 등 주름이나 구김을 편다는 의미입니다.

26. 그는 속마음이 얼굴에 다 ()

①들어난다. ②드러난다.

*해설: ①번의 의미는 물건을 들어서 밖으로 옮긴다는 의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②번의 드러난다는 마음속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기계 약자 ‘ㄷㄹ’를 사용해서 소리가 나는 대로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27. 시간 없으니 기간을 최대한 ()

①늘려라. ②늘여라.

*해설: ②번의 의미는 본래의 것보다 더 길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28. 퀴즈를 풀면 반쯤은 ()

①맞춘다. ②맞힌다.

*해설: ①번의 의미는 ‘비교해서 일치시킨다, 어떤 대상과 같게 하다’로 쓰입니다.

예문->답을 맞추어본다.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다.

29. ‘고구려’라는 이름이 ()

①부쳐졌다. ②붙여졌다.

*해설: ①번의 ‘의미는 힘이나 실력이 미치지 못하다, 부채 같은 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편지나 물건을 보내다,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문->힘에 부치는 일이다. 책을 소포로 부쳐라.

30. 반쯤 달렸는데 열 사람을 ()

①제쳤다. ②젖혔다.

*해설: ①번의 의미는 ‘안쪽이 겉면으로 나오게 하다, 몸의 윗부분이 뒤로 젖게 하다’로 쓰입니다.

②번의 의미는 ‘거치적거리지 않도록 치우다, 어떤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다’의 의미입니다. (‘걸리적거리다’로 많이 쓰지만 잘못된 표현이니 ‘거치적거리다’로 정정하여 사용해주세요.)

예문->이불을 옆으로 제쳐놓았다. 앞 사람을 제치고 선두에 나섰다.

31. 다음 낱말 중 맞춤법에 맞는 것은? (2개 정답)

①위쪽 ②아랫쪽 ③뒷동네 ④윗층

*해설: 3번 해설과 동일합니다. 거센소리(ㄷ, ㅋ, ㅌ, ㅍ)와 된소리(ㄲ, ㄸ, ㅃ, ㅆ, ㅈ)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2.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①네트웍 ②다이나믹 ③드라이크리닝 ④러닝머신

*해설: 외래어 중 이미 한글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들은 영어의 발음기호대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 발음기호를 꼼꼼하게 공부하기에는 양이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영어단어들은 속기록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검색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고 작성하여 주시면 오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가 낭독에서 나온다면 뒷부분에 탈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외래어 또는 어려운 외래어는 메모장에 모아두고 하루 10분이라도 반복해서 속기하시면 독타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네트웍 ②다이내믹 ③드라이클리닝

33.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①미스테리 ②소시지 ③슈퍼마켓 ④스프

*해설: 32번의 해설을 참고하여 주세요.

①미스터리 ③슈퍼마켓 ③수프

34.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①커튼 ②팜플렛 ③프랜카드 ④악세사리

*해설: 32번의 해설을 참고하여 주세요.

②팸플릿 ③플래카드 ③액세서리

35.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①아이샤도우 ②앙케트 ③토마토케첩 ④초콜렛

*해설: 32번의 해설을 참고하여 주세요.

①아이샤도 ③토마토케첩 ④초콜릿

36.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①케익 ②알카리 ③트렌드 ④트랜드

*해설: 32번의 해설을 참고하여 주세요.

①케이크 ②알칼리

37. 문장부호가 잘못 사용된 문장은?

①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②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③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④ 네, 지금 가겠습니다.

*해설: ②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연결할 때 쓰거나,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열거의 순서를 나타낼 때,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되풀이되는 말을 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한 문장 안에서 ‘곧’ 따위의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도치된 어구 사이에,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 뒤에,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쓰입니다.

38. 다음 중 문장부호를 알맞게 사용한 문장은 어느 것입니까?

①이번 주말에는 영화를 볼까? 연극을 볼까?

②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 걸까.

③“예.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④6/25 전쟁 이후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

*해설:

①이번 주말에는 영화를 볼까, 연극을 볼까?->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할 때 쉼표를 사용합니다.

③“예.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큰따옴표는 타인이 한 말을 가져올 때 사용됩니다.

④6.25 전쟁 이후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

문장부호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쌍점, 빗금,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소괄호, 중괄호 등이 있습니다.

문장부호 중 쉼표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문장의 뜻이 바뀌기 때문에 문장부호를 공부하실 때 중점을 두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답안지 하단에 문장부호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 잘못된 우리말을 고르세요.

①골칫거리 ②곶슬머리 ③금실 ④금세

*해설: ②곶슬머리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표기가 틀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을 많이 작성하고, 많이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암기를 해서 여러 단어를 고쳐서 쓸 수는 없지만 일을 하시다가 보면 노하우가 생기니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하게 속기하실 수 있습니다. 헛갈리는 단어들은 반드시 한번 정도는 검색해 보시는 것도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0. 잘못된 우리말을 고르세요.

①바닷속 ②머리말 ③머지않아 ④멀지않아

*해설: ④머지않아->시간적으로 멀지 않았다는 형용사입니다.

기계를 사용하여 ‘멀지 않아 또는 머지 않아’로 속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41. 다음 중 준말을 잘못 쓴 것은?

①그것으로 ->그걸로

②생각하건대->생각컨대

③어제저녁->엇저녁

④간편하게 ->간편케

*해설: ‘생각하건대’에서 ‘하’의 ‘ㅎ’이 줄어 ‘컨’으로 표기가 되거나, 발음이 ‘컨’으로 나기 때문에 ‘컨’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컨대’가 맞는 표현이니 꼭 암기하여 주십시오.

42.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골라서 바로 잡으세요.

①못 난 놈 떡 하나 더 준다. ->못난 놈 떡 하나 더 준다.

②하는 짓을 보면 그 녀석 참 못 됐네. ->하는 짓을 보면 그 녀석 참 못됐네.

③잘 사는 사람일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군.->잘사는 사람일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군.

④그사람보다야 내가 더 낫지. ->그 사람보다야 내가 더 낫지.

*해설:

①못 난 놈 떡 하나 더 준다. -> 못난 놈 떡 하나 더 준다.

⇒‘못’이 부정사의 의미가 아니고 동사이므로 붙여서 사용합니다.

부정사의 의미가 있을 때 ‘못’을 띄어쓰기합니다.

②하는 짓을 보면 그 녀석 참 못 됐네. -> 하는 짓을 보면 그 녀석 참 못됐네.

⇒‘못’이 부정사의 의미가 아니고, 동사이므로 붙여서 사용합니다.

부정사의 의미가 있을 때 ‘못’을 띄어쓰기합니다.

③잘 사는 사람일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군. -> 잘사는 사람일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군.

⇒ ‘잘사는’은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잘’이 옳고 바르다는 뜻의 부사로 사용될 때 띄어쓰기합니다. (잘 한다, 잘 먹는다 등)

④그사람보다야 내가 더 낫지. ->그 사람보다야 내가 더 낫지.

⇒ ‘그’는 대명사입니다. ‘사람’과 띄어 써야 맞습니다.

43. 띄어쓰기가 맞게 된 단어를 골라주세요.

①그가 (떠난 지, 떠난지)일주일 만에 편지가 왔다.

⇒ ‘지’는 의존명사라고 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속기록을 작성하실 때 속기기계로 활용약자를 사용하실 때 ‘-ㄴ지’로 붙여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의존명사로 쓰이지 않는 ‘지’도 있으니 무조건 띄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역시 속기록을 작성하는 경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것이니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②감자찌기와 (달걀삶기, 달걀 삶기)

⇒한 단어로 사용되는 말이니 붙여 씁니다.

③언니는 얼마나 (울었던지, 울었던 지)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 문장에서는 ‘지’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니 붙여 씁니다.

④신발을 벗고 (맨발로, 맨 발로) 걸으면 건강에 좋다고 한다.

⇒‘맨’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는 뜻이면 붙여서 씁니다.

‘제일’이라는 뜻이면 띄어 씁니다. (맨 처음, 맨 나중 등)

⑤우리 회사는 1년 동안 (괄목할 만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만하다’는 명사 뒤에서 조사로 쓰이면 붙여 씁니다. (형만 한 아우 없다.)

하지만 앞 말이 타당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쓰이는 보조형용사의 경우에는 띄어서 씁니다. (힘들지만 견딜 만하다.)

⑥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언니는 (열세 살, 열세살)소녀였다.

⇒‘살’은 나이를 세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⑦우리는 미국에 (삼년 육개월간, **삼 년 육 개월간**)머물렀다.

⇒‘개월’은 달을 세는 단위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44. () 안에서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시켜 보세요.

①세상사가 반드시 흑과 백으로 (**가름되는**, 갈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음’은 다른 것을 바꾸어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②우체국을 (**거쳐서**, 견혀서) 집으로 갔다.

⇒‘견혀서’는 ‘견다’의 피동사입니다. 구름이나 안개 따위가 흩어져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③얼룩백이 황소가 게으른 울음을 (**울던**, 울든)광경이 떠오른다.

⇒‘던’과 ‘든’은 문제 19번 해설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④화가 난 나는 두어(거름, **걸음**) 빨리 걸어갔다.

⇒‘거름’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주는 물입니다.

⑤방에는 (놀음꾼들이, **노름꾼들이**)모여 있었다.

⇒‘놀음꾼’은 ‘노름꾼’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45.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몇 : ㅁ⑥

② 같 : ㅏㅑ

③ 젊 : ㅁㄹ-

④ 값 : ㄱㅅ-

46. 다음 중 기본조사 운지법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이 : ㅇ ㅣ

② **에** : ㅑ ㅣ

③ 와 : ㅇㅜㅏ

④ 워 : ㅇㅜㅑ

47.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이것이 / 그것이 / 저것이 : ㅇ-※ / ㄱ-※ / ㅈ-※

② 이것은 / 그것은 / 저것은 : ㅇ-ㄴ / ㄱ-ㄴ / ㅈ-ㄴ

③ 이것도 / 그것도 / 저것도 : ㅇ-ㄷ / ㄱ-ㄷ / ㅈ-ㄷ

④ 이것을 / 그것을 / 저것을 : ㅇ-ㄹ / ㄱ-ㄹ / ㅈ-ㄹ

48.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올 수 : ㅛ-ㄹㅅ ② 골 수 : ㄱㅛ-ㄹㅅ ③ 솔 수 : ㅅㅛ-ㄹㅅ ④ 볼 수 :
ㅂㅛ-ㄹㅅ

49.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돼도 ② 돼서 ③ 돼요 ④ 돼고

50. 아래의 약자가 틀린 것은? ()

① 했습니다. - ㅎㅁ-ㅂㄴ

② 있습니다. - ㅇㅅ-ㅂㄴ

③ 왔습니다. - ㅇㅏㅂㄴ

④ 었습니다. - ㅓㅂㄴㅅㅈ

51.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에 비하여 : ㅂ-ㅎㅇ ② 에 대하여 : ㄷ-ㅎㅇ

③ 을 통하여 : ㅎㄷ-ㅎㅇ ④ 기 위하여 : ㄱㅣㅎㅇ

문 장 부 호

문장부호는 아래에 첨부한 것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작성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을 선택하여 첨부하여 드립니다.

완성도가 높은 속기록을 작성하시려면 기본적인 문장부호 사용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문장부호와 맞춤법 활용도가 높아야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은 한글맞춤법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3. 물결표(~)

(1) '내지'라는 뜻에 쓴다.

9월 15일 ~ 9월 25일

(2)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쓴다.

새마을: ~ 운동 ~ 노래

- 가(家): 음악~ 미술~

3. 느낌표(!)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1) 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 다음에 쓴다.

앗!

아, 달이 밝구나!

(2) 강한 명령문 또는 청유문에 쓴다.

지금 즉시 대답해!

부디 몸조심하도록!

(3) 감정을 넣어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대답할 적에 쓴다.

준환아!

예, 도련님!

(4) 물음의 말로써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

[붙임 3] 감탄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느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1. 마침표

1. 온점(.), 고리점(。)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1) 서울,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청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황금 보기를 풀같이 하라.
집으로 돌아가자.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압록강은 흐른다(표제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

1919. 3. 1, (1919년 3월 1일)

(3)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

1. 마침표

ㄱ. 물음표

가. 인명

(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서. 1987. 3. 5. (서기)

3. 따옴표

1. 큰따옴표(“ ”), 겹낫표(『 』)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2. 작은따옴표(‘ ’), 낫표(「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1)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여러분! 청학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2)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붙임]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2. 가운데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1) 심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공주·논산·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구에서 2명씩 국회를 뽑는다.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월 815광복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정복방언의 조사연구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2. 쉼표

1. 반점(.), 모점(、)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

(1)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다만,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쓰지 않는다.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2)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3)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4)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5)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애야, 이리 오너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6) 제시어 다음에 쓴다.

땡, 땡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용기, 이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은이의 자산이다.

(7) 도치된 문장에 쓴다.

이리 오세요, 어머니. 다시 보자, 한강수야.

(8)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쓴다.

아, 깜빡 잊었구나.

(9) 문장 첫머리의 접속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쓴다.

첫째, 몸이 튼튼해야 된다. 아무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너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10)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철수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을 맞았다.

(11)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에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12)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쓴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이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 본다면,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13) 숫자를 나열할 때에 쓴다.

1, 2, 3, 4

(14)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에 쓴다.

5, 6 세기

6, 7 개

(15)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에 쓴다.

14,314

끝.